

〈格致藁·儒略·我止〉章을 통한 止行遇決의 概念 考察

池圭鎔*

A Study on Concepts of Stay · Practice · Meet · Manage through The Chapter of <Meditative Essay · Synopsis of Confucianism · I stay>

Chi Gyoo-yong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ncepts of Stay · Practice · Meet · Manage come out of <Meditative Essay · Synopsis of Confucianism · I stay> and to compare with Stay · Practice · Perceive · Manage come out of <Meditative Essay · Synopsis of Confucianism · Business & Things>. Through this study, several important views and understandings could be proposed as follows.

1. Stay means stay at home with Doing homeworks or any other concrete things in his best and most righteous way as possible. And there's needed virtue of diligence.
2. Practice means do good one's behavior or don't violate etiquette. And there's needed virtue of ability.
3. Meet means meet with a lot of people and put them to rights or encourage them in their goodness in the course of acquaintance. And there's needed virtue of wisdom.
4. Manage means manage business or affairs changing from time to time, that is, decide and solve the complicated affair timely. And there's needed virtue of sincerity.
5. Perceive is substituted to meet simply. The reason why mind is substituted to people.

* 東義人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6. The abstract and philosophical conception of Mind · Body · Business · Things can have vivid and practical meanings by intervention of intermediary being, People · Ego · Heaven · Earth. As for Dongmoo, 4 items of Stay · Practice · Meet · Manage are the aims and methods to accomplish the Confucian's utopia filled with righteousness.

Key word: Stay · Practice · Meet · Manage, Stay · Practice · Perceive · Manage, Chapter of I Stay.

초 록

1. 연구목적

〈格致彙〉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心身事物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四元의 일차적인 屬性을 규정하는 것이 止行 覺決이다. 我止章의 전면적인 해석을 통하여 事物章의 止行覺決과 我止章의 止行遇決을 비교분석하면서 함의를 밝히고 그 同異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事物章의 3조문과 我止章 전체를 번역하고 고찰에서 문자적인 해설을 첨부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3. 고찰 및 결론

止는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가장 합당하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至善하게 處身하는 것이며 이 때에 요구되는 德目이 勤이다. 行은 人倫間의 활동에서 항상 모든 行實을 바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요구되는 德目이 能이다. 遇는 世會의 領域에서 많은 사람들과 交流하면서 揚善去惡하며 教化修飭에 노력하는 것이고 이 때 요구되는 德目이 慧이다. 決은 天時에 응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決斷하여 처리함으로써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이 때 요구되는 德目이 誠이다. 또한 止行遇決과 止行覺決은 主語가 心에서 人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라 서술어도 覺에서 遇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미맥락은 같다. 나아가 東武에게 있어 진정한 止行遇(覺)決의 실천은 품으로 충만한 세계인 孔孟道德의 理想世界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방법이자 목표로써 설정되고 있다.

중심어: 我止, 止行遇決, 止行覺決.

I. 序 論

〈格致彙·儒略〉은 〈東醫壽世保元〉의 중심개념인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이라는 四元構造와 〈格致彙〉의 중심개념인 心, 身, 事, 物이라는 四元構造를 설정하고 해설한 중요한 論篇이다. 事物章에서 규정한 心身事物 각각의 四端에 대해 觀仁章과 志貌章, 天下章, 四季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연하여 설명하였고 天機四元에 대해서도 天勢章, 天時章, 天下索我章등에서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 事物章의 첫머리에서 心身事物과 관련하여 규정된 하위개념인 止行覺決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명확한 의미가 보여지지 않다가 我止章에서 止行遇決로 약간 변형되어 나오긴 하지만 그 의미의 대강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事物章과 我止章을 비교하면서 분석하면 止行覺決에 대한 개념도 아울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두 章을 비교하면서 止行覺決과 止行遇決의 차이점 및 같은 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心身事物에 대한 개념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事物章의 첫 세 문장과 我止章에 대한 번역과 약간의 해설을 연구자료로 실어 두고 이를 바탕으로 考察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事物章

1.1.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

譯) 物은 身에 깃들고 身은 心에 깃들며 心은 事에 깃든다.

1.2.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譯) 一物은 그치고 一身은 行하며 一心은 깨닫고 一事는 處決한다.

1.3.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譯) 勤으로써 머무르고 能으로써 行하며 慧로써 깨닫고 誠으로써 決한다.

2. 我止章

1.1. 我止在地 地有家也 我行在我 我有身也

我遇在人 人有心也 我決在天 天有事也

내가 머무르는 것은 땅에 있으니 땅에 집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行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만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으니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 일이 있기 때문이다.

1.2. 我家着地 地命我勤 我身立局 局命我能

我心渾衆 衆命我慧 我事係天 天命我誠

나의 집은 땅에 붙어 있는데 땅은 나에게 근면할 것을 명하고

나의 몸은 局方에 서 있는데 局은 나에게 능히 할 것을 명하며

나의 마음은 무리 안에 섞여 있는데 무리는 나에게 슬기로운 것을 명하고

나의 일은 하늘에 매어 있는데 하늘은 나에게 성실할 것을 명한다.

1.3. 民各有家 不奪各活 民各有身 不侵各飭

民各有心 不凌各得 民各有事 不害各成

사람들은 각자 집을 갖고 있지만 각자 살아가는

것을 침탈하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 몸을 갖고 있지만 각자 닦는 것을
 침탈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각자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각자 心得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 일을 갖고 있지만 각자가 이루는
 것을 해치지 않는다.

1.4. 地養萬家 不吝其利 局育萬身 不吝其材
 衆包萬心 不吝其謀 天施萬事 不吝其時
 땅은 모든 집을 養殖하면서도 그 이로움을 아끼지
 아니하고
 局은 모든 몸을 길러 주면서도 그 資材를 아끼지
 아니하며
 衆은 모든 마음을 포용하면서도 그 꾀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늘은 모든 일을 베풀어 주면서 그 때를 아끼지
 아니한다.

1.5. 我止我家 莫如勤也 我行我身 莫如能也
 我遇我心 莫如慧也 我決我事 莫如誠也
 내가 나의 집에 머무름에 근면함보다 나은 것이
 없고
 내가 나의 몸을 행함에 재주를 다하는 것보다 나
 은 게 없으며
 내가 나의 마음을 만남에 지혜로운 것보다 나은
 게 없고
 내가 나의 일을 處決함에 성실함보다 나은 게 없
 다.

1.6. 若勤不勤 無以爲家 若能不能 無以爲身
 若慧不慧 無以爲心 若誠不誠 無以爲事
 만약 근면이 근면답지 못하다면 그것으로 집을 살
 릴 수 없고
 만약 재능이 재능답지 못하다면 그것으로 몸을 닦

을 수 없으며
 만약 지혜가 지혜답지 못하다면 그것으로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만약 성실함이 誠답지 못하다면 그것으로 일을 이
 룰 수 없다.

1.7. 地命汝家 不奪民家 局命汝身 不侵民身
 衆命汝心 不凌民心 天命汝事 不害民事
 땅이 너의 집에 명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집을 빼
 앗지 말라 하고
 局이 너의 몸에 명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몸을 침
 탈하지 말라 하며
 衆이 너의 마음에 명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능멸하지 말라 하며
 하늘이 너의 일에 명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해치지 말라 하였다.

1.8. 地命汝家 汝家汝爲 局命汝身 汝身汝爲
 衆命汝心 汝心汝爲 天命汝事 汝事汝爲
 땅은 너의 집에 명하기를 네 집은 네가 하라 하
 였고
 局은 너의 몸에 명하기를 네 몸은 네가 하라 하
 였으며
 衆은 너의 마음에 명하기를 네 마음은 네가 하라
 하였고
 하늘은 너의 일에 명하기를 네 일은 네가 하라
 하였다.

1.9. 莫非同家 我家我亟 莫非同身 我身我切
 莫非同心 我心我緊 莫非同事 我事我急
 집을 한가지로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집은 내
 가 빠르게 하고
 몸을 한가지로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몸은 내
 가 절실하게 하고
 마음을 한가지로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내가 긴장되게 하고
일을 한가지로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일은 내
가 긴급하게 한다.

- 1.10. 莫非均勤 我勤我先 莫非均能 我能我先
莫非均慧 我慧我先 莫非均誠 我誠我先
고루 다 근면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근면함을
내가 먼저 하고
고루 다 능히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능함을
내가 먼저 하고
고루 다 지혜롭게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지혜
로움을 내가 먼저 하고
고루 다 성실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성실함을
내가 먼저 해야 한다.

- 2.1. 我有我家 此生家也 我有我身 此生身也
我有我心 此生心也 我有我事 此生事也
내가 가진 나의 집은 이승의 집이고 내가 가진
나의 몸은 이승의 몸이며
내가 가진 나의 마음은 이승의 마음이고 내가 가
진 나의 일은 이승의 일이다.

- 2.2. 此生此家 其止不一 此生此身 其行不一
此生此心 其遇不一 此生此事 其決不一
이승의 이 집은 그 머무름이 하나가 아니고 이승
의 이 몸은 그 행이 하나가 아니며
이승의 이 마음은 그 만남이 하나가 아니고 이승
의 이 일은 처결함이 하나가 아니다.

- 2.3. 七尺有軀 其止無窮 八方周遊 其行無窮
萬夫取謀 其遇無窮 四時不絕 其決無窮
일곱 자의 몸에 그 머무름이 무궁하고 八方을 주
유하니 그 행함이 무궁하며
모든 사람들이 꾀를 쓰려 하니 그 만남이 무궁하
며
사시사철 끊임없이 바뀌니 그 결단함이 끝이 없다.

- 2.4. 止止又止 行行又行 遇遇又遇 決決又決
머무르고 머무르되 또 머무르며 행하고 행하되 또
행하며
만나고 만나되 또 만나며 결단하고 결단하되 또
결단한다.

- 2.5. 止止又止 終成大止 行行又行 終成大行
遇遇又遇 終成大遇 決決又決 終成大決
止止又止하면 마침내 큰 止를 이루고 行行又行하
면 마침내 큰 行을 이루며
遇遇又遇하면 마침내 큰 遇를 이루고 決決又決하
면 마침내 큰 決을 이룬다.

- 2.6. 不止以止 中藏慾心 當決不決 中藏私心
意勢弘遠 萬倍得也 志量確深 萬倍利也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면 속에 慾心을
간직하게 되고
응당 결단해야 함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속에 私心
을 갖게 되지만
意의 勢가 크고 원대하면 만배로 얻을 것이며
志의 局量이 굳세고 깊으면 만배로 이롭게 된다.

- 2.7. 賴人僥倖 內懷放心 怠吾當行 內懷逸心
身先當行 天下助也 心絕僥倖 四方佑也
남의 요행에 의지하면 안에 방자한 마음을 품게
되고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게을리 하면 안에 淫逸한
마음을 품게 되지만
몸이 응당 행할 것을 먼저 하면 天下가 도울 것
이며
마음 속에 요행심을 끊으면 사방에서 돕게 된다.

- 2.8. 止當大止 行當大行 遇當大遇 決當大決
머무르려면 마땅히 크게 머물러야 하고 행하려면
마땅히 크게 행해야 하며
만나려면 마땅히 크게 만나야 하고 결단하려면 마

땅히 크게 결단해야 한다.

3.2. 止高疆場 是謂大止 行高廣局 是謂大行
 遇高大眾 是謂大遇 決高當時 是謂大決
 머무름이高出하면 마당을 굳세게 하니 이를 크게
 머무른다 하고
 행함이高出하면 局을 넓히게 되는데 이를 크게
 행한다 하며
 만남이高出하면 衆을 크게 만드는데 이를 크게
 만난다 하고
 결단함이高出하면 때에 適當하게 되는데 이를 크
 게 결단한다고 한다.

3.3. 止高疆場 包涵疆場 行高廣局 揖讓廣局
 遇高大眾 權衡大眾 決高當時 橫縱當時
 머무름이 높아 마당을 굳세게 하였다면 疆場을 두
 루 적시게 되고
 행함이 높아 局을 넓혔다면 廣局을 공손히 양보하
 여 물려주게 되며
 만남이 높아 衆을 크게 하였다면 大衆을 저울질하
 여 알아낼 수 있고
 결단함이 높아 때에 적당하게 되었다면 적당한 때
 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3.4. 包涵疆場 便宜莫善 揖讓廣局 材幹莫善
 權衡大眾 機警莫善 橫縱當時 鍊達莫善
 강장을 두루 머금으면 편리함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광국을 공손히 양보하면 재간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으며
 대중을 헤아리게 되면 機敏함이 이보다 더 나은
 게 없고
 적당한 때에 움직일 수 있으면 鍊達함이 이보다
 더 나은 게 없다.

3.5. 止高疆場 其勤無敵 行高廣局 其能無敵
 遇高大眾 其慧無敵 決高當時 其誠無敵
 머무름이 높아 마당을 굳세게 하였다면 그 勤함은
 대적할 것이 없으며
 행함이 높아 局을 넓혔다면 그 能함은 대적할 것
 이 없고
 만남이 높아 衆을 크게 하였다면 그 지혜로움은
 대적할 것이 없으며
 결단함이 높아 때에 적당하게 되었다면 그 誠함은
 대적할 것이 없다.

3.6. 敬止以止 罔災居也 閑行以行 毋作怠也
 貞遇以遇 無或犯也 明決以決 勿愆期也
 머무름을 공경하여 머무름으로써 재앙이 들지 말
 게 할 것이며
 行實을 조용하게 하여 행하되 게으르게 하지 말
 것이며
 만남을 바르게 하여 만남으로써 흑시라도 범하지
 말 것이며
 결단을 명쾌하게 하여 결단하되 시기를 놓치지 말
 아야 한다.

IV. 考 察

1. 事物章

먼저 1.1에서 宅은 자리잡고 사는 것을 뜻한다.
 心身과 事物은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생활양식을 크
 게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파한 기본 개념이며 고금을
 통틀어 보편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上體가 빠져 있
 는데 그것은 물론 '나'이다. 즉 세상을 구성하고 선
 악을 지으며 오늘도 내일도 삶을 이어가고 있는 개
 개의 賔存하는 人間이다. 나는 마음과 몸을 통하여
 外界의 사물과 접촉하면서 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망라한 人類의 全歷史이다.

1.2.에서는 개체로서의 心身事物에 대한 기본적인 屬性 내지 원리를 밝히고 있다. 1.1.에서처럼 心身事物은 연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각기 개별적인 존재가치와 성격이 있다. 먼저 物은 '固着'하여 有形化하고 養育하며 身은 항상 '動作'함으로써 心을 따르고 事를 행하며 物을 변화시키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心은 항상 '覺知'함으로써 事를 실패하지 아니하고 身을 게으르지 않게 전사할 수 있다. 또 事는 항상 處理·解決'되어야지 끊기거나 멎힘이 있어서는 안되니 마치 제방의 물이 터져 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1.3.은 위의 止行覺決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시에 實踐的 當爲이기도 하다.

2. 我止章

1.1.에서의 止行遇決은 〈事物〉章 1.2.에서 나온 止行覺決의 변형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한다.

1.2.에서 다시 勤能慧誠이 나오는데 〈事物〉章 1.3.과 맥락이 같다.

局은 내 몸의 활동이 미치는 범위(영역), 즉 어떤 마을이나 읍 내지 도시를 말한다. 地는 내 不動產이 있는 좁은 땅덩어리를 의미한다. 즉 地는 내가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논을 부쳐먹어야 하는 땅이고, 局은 내 재능으로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영역이다. 또 衆은 집과 땅의 관계처럼

내 마음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 연결관계를 가진 존재이고 天은 몸과 局의 관계처럼 나의 마음이 고민하고 사유하는 분야들을 모두 포괄하는(주로 儒家的 개념의 士大夫나 君子的 가치를 위주한 治國 平天下事業) 貫時空的·價値論的 개념의 사회활동 영역이다.

1.3.에서의 民은 위에서 나온 個我를 확장한 것으로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 하나로 이루어진 전체를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心身事家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침탈하거나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의 당위적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 活은 땅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飭은 몸을 삼가고 정성스럽게 하며 힘쓰는 것이다. 得과 成의 대상도 역시 마음과 일이다.

1.4. 동양사상에서 일반적으로 天地는 無私無慾하여 親疎遠近을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되는데 여기서는 衆과 局에 대해서까지 확장하고 있다. 衆과 局은 사람들이 모여서 交遇와 黨與로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적으로 人欲이 잘 介入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地와 같은 地位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 하나의 개인이 모여 衆과 局을 이루는 것인 만큼 개별적인 心身 하나 하나가 항상 好善惡惡하는 공평무사함을 이루었을 때의 局과 衆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개인이 하기 나름에 따라 局과 衆이 달라진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地利와 天時는 〈孟子〉에도 나오는 것처럼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하늘이 계절과 기후를 만들고 땅이 곡식을 내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材와 謀는 사실 〈書經〉에 많이 등장한다. 大禹謨라든지, 〈洪範〉편의 "聰作謀"라든지, 〈金縢〉편의 "能多材多藝"라든지 하는 것이 예인데 謀는 謀와 같다. 여기서의 謀

는 단순한 피라기보다는 公利를 위한 큰 계획이나 정책적 건의를 말하며 材는 어떤 機局의 棟梁이 될 수 있는 재주나 才能, 才質을 말한다.

1.5. 莫如~는 ~같은 것이 없다는 말이지만 ~한 것이 가장 좋다는 강조적 표현이다. 여기서는 止行遇決과 心身事家 및 勤能慧誠을 결합하여 1.4.까지의 소단락을 종합하고 있다.

文中的 我는 個我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며, 心身事家는 보편적 개념으로써 모든 個我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勤能慧誠이라는 도덕적 당위무를 부여함으로써 天地局衆으로 나누어진 이 세상의 平和와 至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1.6. 爲는 위의 1.3.에서 나온 活飭得成을 각기 대신하는 말로 볼 수 있다. 事物章 5.3.에서 말한 것처럼 남보다 백 배 천 배 노력한다는 각오로 心誠求之하면 篤行이 쌓여서 誠慧能勤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설사 心身事家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것이 못되어 언제라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된다. 요즈음 한 때의 권력자들이 자기 몸 하나, 마음 하나 看守하지 못해서 감옥으로 가는 오욕을 겪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1.7. 1.4.에서 天地와 衆局은 人欲과 邪心이 배제된 개념으로 <中庸>에서 "天命之謂性"이라 할 때의 天과 같다. 命은 일종의 至上命命으로써 당위적 도덕법칙임을 闡明하는 것이다. 汝는 個我이고 民은 汝를 제외한 個我 전체이다. 이 문장은 다음 1.10.까지의 문장과 함께 개인적으로 勤能慧誠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보충설명이다.

1.8. 자기의 心身을 닦고 事家를 이룸에 있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절대 안되며 반드시 자기의 힘으로 熱과 誠을 다해서 획득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일이 제 하기 나름'이라는 말처럼 天機를 얻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다.

1.9. 집을 한가지로 한다는 것은 1.8.에서의 汝家汝爲를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여 人人各自가 집을 살리고 몸을 닦으며 마음을 열고 일을 이루기 위해 勤能慧誠한다는 뜻이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家를 서술하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나의 집은 내가 빠르게 한다는 것은 나의 집을 살리기 위해 勤하는 노력을 모두 다 하겠지만 내가 가장 빨리 率先하여 실천한다는 뜻이다. 身 心 事의 경우들도 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1.10. 위 조문과 表裏가 되는 문장으로 앞에서 心身事家를 말하고 뒤에서는 그 實踐方法을 말하여 술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모든 個我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편 존재로서의 善하고 옳은 心身事家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勤能慧誠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논한 첫 단락이다.

2.1. 儒家에서는 본래 孔子가 怪力亂神에 대해 말하지 않고 鬼神을 敬遠한다고 한 것처럼 절대 이승과 來世를 구분하여 말하지 않는 법인데 여기서는 이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東武가 철저한 儒者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마 이승이 꼭 저승이나 내세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2.2. 위의 1단락에서 個我的 엄밀한 勤能慧誠을

주제로 논의해 왔는데 둘째 단락에서는 모든 倘我が 갖고 있는 心身事家の 止行遇決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매우 많은 다양성이 있음을 지적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善과 惡의 양 극단 가운데 많은 종류의 止行遇決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미이다.

2.3. 止行遇決이 다양하게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한 것이다. 즉 몸을 놀리는데 따라 止가 달라지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니 온갖 행실이 나올 것이며 술한 사람들이 자기 꾀를 쓰며 어울리니 다양한 交遇가 나올 것이며 때에 따라 일의 타이밍이 달라지니 결단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2.4. 지행우결이 다양하다면 善에 이를 때까지 뜻을 더욱 篤實하게 하고 反省하여 지행우결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이것이 위 2.2., 2.3.조문의 해결책이다. 이것은 마치 〈大學〉에서 “湯之盤銘曰：苟日新，日日新，又日新”이라하여 新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2.5. 이처럼 세상에서 온갖 사악하고 못된 止行遇決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자꾸 반복하고 돌이키면 결국에는 크게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2.6.과 2.7.은 이어져 있는 문장이므로 연결해서 설명한다. 孟子가 “孔子는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하시다”라고 한 것처럼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이 道이고 聖人인 것이다. 만일 지행우결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천하사방이 만배로 이익을 얻을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사방일욕의 邪心이 盛해져서 ‘萬事休矣’가 되는 것이다. 逸心은 그냥 安逸하다는 정도

로는 부족하고 음탕하고 잘못된 것을 좇아서 거기에 빠져 즐기고 탐닉하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가 止行遇決의 差別相과 결과 및 극복하기 위한 방법 등을 설명한 부분이며 다음에 이상적인 止行遇決의 모습을 導入하기 위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3.1. 당위성에 대한 재차 강조와 동시에 다음 문장을 위한 도입의 역할을 한다. 위에서는 大止 大行 大遇 大決을 위한 수행실천 측면에서 말했지만 다음에는 그 效果에 대해 설명한다.

3.2. 高는 높낮이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 수준이나 방법이 월등하게 높다는 뜻이다. 場은 地이며 생활터전이다. 廣은 局量을 넓히는 것이고 大衆의 大는 交遇하는 일반인들의 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확충하여 크게 한다는 뜻이며 當은 天時의 흐름에 적절히 부합한다는 뜻이다.

3.3. 앞에 있는 문장은 각기 2.9.를 받아서 쓴 것이고 뒤 쪽에 나오는 疆場 廣局 등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로 말미암아 형성된 成就와 소득, 즉 굳 세어진 마당과 넓어진 局量 등을 의미한다. 이것을 두루 적시고 양보하여 서로에게 전해준다는 것 등은 天機의 곳곳에 善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편리함은 物과 이어지고 才幹은 身과, 기민함은 心과, 鍊達은 事와 이어지는 개념이다. 鍊達은 일에 대하여 숙련되고 통달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物이 편리하고 몸은 재간이 있으며 마음은 민첩하고 일에 숙련되었으니 心身事物이 廣大極蕩한 天機의 險路라도 능히 躡하기가 如反掌인 것이다. 〈論語〉에

서 공자가 “君子欲納於言而敏於行”이라 하고 “君子食無求飽하고 居無求安하며 敏於事而慎於言하라”한 것처럼 민첩함은 중요한 덕목이다.

3.5. 止高疆場 行高廣局 遇高大衆 決高當時하는 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경지가 아니고 勤能慧誠을篤實하게 쌓아 無雙하게 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6. 위에서 그렇게 勤能慧誠을 그렇게 강조하고 止行遇決을 반복하여 말하고 나서도 아직 부족함이 있어서 공경하는 자세로 조용히, 바르고도 명쾌하게 天機에 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마치 나이든 부모가 철부지 어린 아이를 再三再四, 고구정녕하게 타이르는 것과 같다. 閑은 閒과 같이 보아 떠벌이거나 들너지 않고 조용히 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 단락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크게 止行遇決을 이룬 경우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면서 我止章을 끝맺고 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하여 儒略의 처음부터 나오는 개념이면서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止行覺決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止는 <大學> 經一章에서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知止而後有定 定而後能靜 靜而後能安 安而後能慮 慮而後能得”이라 하고 朱子가 止者所當止之地 卽至善之所在也라 설명한 데서 알 수 있는데 또 傳에서도 “詩云 邦畿千里 惟民所止”라는 문장에 대해 朱子가 “止居也 言物各有所當止之處也”라 설명한 것이나 “詩云 緝糞鳥 止于丘隅 子曰 於止 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라 한 문장이 모두 동무의 숨뜻이다. 즉 事物이 응당 머무를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결국에는 次第를 거쳐 道를 얻

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止이다.

즉 物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경우에 가장 합당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으로 바뀌 말한다면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家事를 돌보거나 자식을 양육하거나 부모를 봉양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涵養하거나 하는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게 處身하는 것(至善之所在)이 止이다. 또 이 때 요구되는 필연적인 德性이면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바로 부지런함(勤)이다.

行에 대해서는 <論語·學而>에 “弟子，入則孝，出則悌，謹而信，汎愛衆，而親仁，行有餘力，則以學文”이라 하고 “父在觀其志，父沒觀其行，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라 하며 <里仁>편에서 “放於利而行，多怨”이라 하고 <子罕>에서 “出則事公卿，入則事父兄，喪事不敢不勉，不爲酒困，何有於我哉?”라 한 용례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상의 行動舉止에 드러나는 行實이고 또 孝를 비롯하여 인간이 응당 해야만 하는 여러 人道를 實踐하는 것이 진정한 行이다. 이처럼 我止章에서 등장하는 行은 아주 卑近하고 사람들이 늘상 행하는 속에 있는 개념이며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知와 行이 상대해서 쓰이는 다소 철학적인 의미와는 약간 다르다.

즉 身이 활동하는 人倫의 周邊에서 항상 만나고 부딪치는 인간(他人之身)들과의 관계 속에서 行實을 바로 하고 예절규범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行이라는 말이며 이 때 요구되는 필연적인 요소가 자신에게 갖춰진 能力과 才能을 다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만나 함께 일하면서 행동하되 자신의 재능을 다하지 않고 겉으로만 禮를 차린다면 이는 假禮이고 진정한 行이 아니다.

遇에 대해서는 <論語>에서 “陽貨欲見孔子，孔子不見，歸孔子豚，孔子時其亡也，而往拜之，遇諸塗”라

하고 〈孟子〉에서도 “千里而見王，是予所欲也；不遇故去，豈予所欲哉？”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善人, 惡人, 權勢者, 野人등을 길에서든 조정에서든 어디서나 만나는 것 모두를 지칭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接應하고 對話하면서 感化를 입히고 잘못을 깨달아 善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遇이다.

즉 心이 미치는 世俗의 領域에서 많은 사람들과 交流하면서 善한 이(他人之心)를 만나면 더욱 복돋워주고 스스로를 반성하여 善性의 滋養을 받으며 惡한 이를 만나면 악한 성품을 돌이켜 善으로 돌아오도록 誘導하고 스스로에게는 反面을 삼아 惡惡하는 性品을 길러서 세상 사람 모두가 堯舜之世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遇라는 뜻이다. 또 이 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德性이 慧인데 이는 지혜가 있어야만 善惡을 능히 가릴 수 있고 頑惡하고 愚猾한 사람들의 마음을 능히 돌려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혜가 없다면 도리어 힘으로 눌러 스스로 傷害를 입을 뿐이니 孔孟도 항상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 지를 살펴서 進退와 取捨를 정하였고 불의의 傷害에 대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論語·述而〉에서 子曰, “天生德於予，桓魋其如予何?”라 한 것처럼 孔子의 大聖大智로도 불의의 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으니 慧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決은 본래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데 〈孟子〉에 “決諸東方則東流하고 決諸西方則西流한다” 한 것처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막힘 없이 길을 터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決은 蕩蕩하게 흐르는 天時에 응하여 일의 방향을 결정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決은 意로 오직 善을 指向하여 決斷하고 措處해가서(處決) 결국에는 大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德目이 바로 誠인

데 이는 眞實无妄하여 公事大業을 遂行함에 있어 意中에 아무런 邪私로움이 介在되지 않고 天之道인 誠으로써 任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天下의 事業은 베풀어져야 할 적절한 때가 있고 정해진 對象이 있는데 이 때와 對象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법이 없어서 時機를 정확히 맞추어 處決되어야만 한다. 만일 勸農하고 興耜하는 사업을 봄철에 하지 못하고 겨울에 한다거나 아이들이 어릴 적에 가르치고 깨우쳐야 할 教育大業을 이미 성장한 다음에 실시하려 한다면 事業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天下를 망하게 할 것이니 事에 있어서 決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孔子가 강조한 時中의 개념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事物章에서의 止行覺決은 心身事物과 연계되어 四元 각각의 본질적 속성을 표현하며 我止章에서의 止行遇決은 東武가 想定하는 세상(社會)사람들의 실천적 행동목표로 내세워지고 있다. 아울러 두 章 모두에서 진정한 止行覺決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로써 勤能慧誠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그것은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이 아니라 〈中庸〉에서 “天命之謂性”이라 한 것처럼 모든 個我が 터잡아 살아가고 있는 地局衆天이 先驗적으로 命한 것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같이 先驗性を 담보하고 있는 止行遇(覺)決이 勤能慧誠을 바탕으로 진실로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생활세계인 場(地)局衆時(天)를 擴充하고 善으로 충만시킬 수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功用을 지닌 止行遇(覺)決이야말로 東武가 평생을 통하여 追求하는 孔孟의 理想世界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我止章의 3節에서 드러난 명확한 주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我止章에서는 覺이 遇로 바뀌어 있는데 이 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我止章에서의 人

我天地와 事物章에서의 心身事物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전자는 개별존재로서의 '나'라는 인간 자체에 중점을 두고 나와 남, 그리고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우리와 주변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설정한 것이고 후자는 보편적 존재로서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마음과 몸,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객관 존재로서의 事와 物을 대비하여 상호관계를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구체적이고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形而下的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후자는 보편적이고 形而上的이며 철학적·心性的인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을 다시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보편과 개별을 종합하여 변증법적 止揚을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것이 東武論理의 치밀함을 엿보게 하는 한 단면이다. 즉 본 문장처럼 個別者로서의 '나'가 보편적 존재인 心身事家(物)에 人我天地라는 중간 매개물을 통하여 關涉함으로써 종합통일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므로 主語가 心에서 人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라 서술어도 覺에서 遇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미맥락은 같은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論

〈格致彙·儒略·我止〉장을 통한 止行遇決의 개념을 추구하고 事物章에 나오는 止行覺決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止는 物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가장 합당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家事를 돌보거나 구체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서 至善하게 處身하는 것이며 이 때에 요구되는 德目

이 勤이다.

2. 行은 身이 활동하는 人倫의 周邊에서 黨與가 이루어지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行實을 바로 하고 예절규범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 때 요구되는 德目이 能이다.
3. 遇는 心이 미치는 世會의 領域에서 많은 사람들과 交流하면서 揚善去惡하며 教化修飾에 노력하는 것이고 이 때 요구되는 德目이 慧이다.
4. 決은 蕩蕩하게 흐르며 변화하는 天時에 응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決斷하여 처리함으로써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이 때 요구되는 德目이 誠이다.
5. 止行遇決과 止行覺決은 主語가 事物章의 心에서 我止章의 人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라 서술어도 覺에서 遇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미맥락은 같다.
6.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인 心身事物은 구체적이고 實物的인 개념의 人我天地라는 중간매개물을 통하여 생생한 실천적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변증법적 통일을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진정한 止行遇(覺)決이 善으로 충만한 세계인 孔孟道德의 理想世界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방법이자 목표라고 생각하였다.

參 考 文 獻

1. 格致彙, 李濟馬, 韓斗正編, 德興印刷所, 咸興, 昭和 15年.
2. 東醫壽世保元, 李濟馬, 杏林書院, 서울, 1970.
3. 孟子集註, 金赫濟監修, 明文堂, 서울, 1984.
4. 論語集註, 金赫濟監修, 明文堂, 서울, 1984.
5. 大學·中庸, 李家源監修, 홍신문화사, 서울, 1980.